



보도 일시	<전매체> 1.26. (목) 10:00	-
-------	-----------------------	---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봉덕 (044-204-7500)
		담당자	서기관	이권재 (044-204-7501)
			사무관	배주형 (044-204-7509)
			사무관	신연재 (044-204-7507)

## 수출 절반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수출 주연으로 육성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 -

- 중소기업이 디지털 분야 미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신규 수출국가로 진출하여 수출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 3대 전략으로 ①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②세계(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 육성, ③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 제시
  - 콘텐츠·기술 등 디지털 분야 수출시장 개척, 튼튼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및 수출국 다변화 사업(프로젝트), 한류 융합 현지진출 등 수출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 26(목) 10:00 ~ 11:30,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서울)
- 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수출 중소기업 대표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 발표 및 의견 청취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세계(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달러를 기록(전년 1,155억달러)하며 선방하였다.

\* 간접수출 : 수출기업에 원·부자재 공급 등을 통해 수출에 기여한 실적

다만, 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 또한 감소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출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일괄(원스톱) 묶음(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및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스마트)도시(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지원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을 수출정책에 우대하는 등 미래 유망 수출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세계(글로벌) 유니콘 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금(펀드) 조성 및 교류행사 개최, 세계(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둘째, 세계(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

#### ① ‘내수기업 세계로 1000+’ 사업(프로젝트)

간접수출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간접수출기업의 수출 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을 신설한다.

#### ②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상표(브랜드)로 통합하고, 세계(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수출이용권(바우처)를 자동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이용권(바우처) 외에도 기술개발(R&D), 정책금융, 지능형(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 ③ ‘수출국 다변화(+N)’ 사업(프로젝트)’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하여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품목별·국가별로 수출 경쟁력 우위 및 수출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다변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신규 수출국 추천 등 다변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셋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주요 세계(글로벌) 무역거점에 설치된 수출보육기(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사무실(오피스) 형태의 ‘세계(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현지 한인협단체 및 기업인 간의 협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케이(K)팝 한류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케이팝 위드 케이-브랜드(K-POP with K-BRAND)’ 행사와 최근 한류가 확산 중인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케이(K)-콘텐츠 엑스포 인(in) 두바이’, 민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K상표(브랜드) 엑스포’ 등 현지에서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동·유럽연합(EU)·미주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전시회 참여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계적인 해외규격인증 요구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 수요가 많은 씨이(CE)(유럽), 엔엠포에이(NMPA)(중국), 에프디에이(FDA)(미국)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접수와 간이심사를 지원하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이에스지(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은 인증별로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기업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범부처 합동 ‘일괄(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세계(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20여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담아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출지원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